

2011 새해에는

⑬ 김주얼 전남개발공사 사장

“적극적 택지 판매로 빛 경영 탈피할 것”

김주얼(57)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늘 직원들에게 ‘디자이너가 되라’고 강조한다. 전남을 떠나 살릴 신산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면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디자이너’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전남개발공사는 ‘미래 가치 디자이너’를 비전으로 삼고 이에 따라 당장의 수익성만 내다보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 장기적 혁신도시 및 강진성전 일반산단 조성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은퇴자·귀농자 등을 대상으로 한 뉴타운 건설 등의 밀그리드도 이같은 전략에 따라 수립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만 강조하는 게 아니다.

김 사장은 지난 31일 개발공사 사장실에서 “수익이 전제되지 않는 공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을 이끌어갈 만한 신산업을 발굴하는 한편, 민간 기업 뜻지 않게 수익을 창출해야 공의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도움이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지난해 말 김 사장이 종무식 뒤 곧바로 직접 수도권 기업들을 찾아 산업단지 미분양 물량 관리를 나서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토지 판매를 위해 수도권 원정 판촉활동을 독려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김 사장은 “적극적인 택지 판매로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차입에 의존한 경영구조를 탈피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같은 경영 이론에는 공익적 가치 실현과 수익성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공기업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때문인지 사업 얘기에 들어가자 김 사장은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 청신호****2020년 매출 5천억 달성 무난**

큰 그림부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구체적인 자료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전남개발공사의 이같은 구상에 따라 추진되는 올해 최고 역점사업 중 하나다.

여수 국동항에서 배로 5분 거리인 경도 216만m² 부지에 2012년까지 1단계로 숙박시설(콘도 100실)과 27층 규모 골프장, 해양체험·활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로 숙박시설이

완공되면 전남의 비교우위의 관광자원인 섬과 해양, 갯벌을 아우르는 세계적 수준의 해양·관광단지 조성의 첫 단추가 끊어지게 된다. 1단계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만 3205억원.

4093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인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조성사업도 탄력이 불게 될 전망이다.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들의 부지매입 계약도 잇따라 체결되고 있는데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공동택지에 대해서도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다.

김 사장은 “토지대금만 14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공동주택 및 체육시설 사업투자가 나타나 계약을 맺은 상태로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가 조성을 담당하는 혁신도시 부지 내 분양대상면적의 60%에 달하는 만큼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기대도 나온다.

여기에 천일염 사업과 해남 땅끝호텔·무안공항 면세점, 유통복합·부동산 사업 등도 흑자 운영의 첫해가 될 것을 목표로 다양한 수익창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예컨대 천일염 사업의 경우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 수출활로를 모색하고 땅끝호텔은 청정한 공기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홍보전략을 수립해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달리, 김 사장의 표정엔 느긋함이 배어있었다.

김 사장은 “올해를 재도약하는 한 해로 삼아 2~3년 뒤면 빛을 강야가면서 자체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꾸려갈 수 있는 기반을 닦을 것”이라며 “오는 2020년이면 매출 50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민기자 dok2000@kwangju.co.kr

올 상반기 채용시장 활기…예정인원 20만명선

종업원 100명 이상을 거느린 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을 세웠으며, 이들 기업의 채용예정 인원 합계는 19만9000명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상반기 기업 신규인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채용예정 인원은 작년 하반기의 12만8000명보다 55%(7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31일 밝혔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12만4000명, 100~300인 기업은 7만5000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 채용계획을 세운 100인 이상 기업의 비율은 작년 하

반기(60.4%)보다 다소 높은 62.3%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는 벤처기업(80.3%), 법인단체(69.9%)의 채용계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채용 계획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임시직보다는 상용직(84.4%) 경력직보다는 신입직(58.0%)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42.5%), 대졸(33.9%) 등이었고 직종별로는 판매 및 개인 서비스직(32.4%)의 비중이 커졌다.

전년 동기 대비 채용계획 인원의 증감 현황을 조사해보니 전체 기업의 33.3%는 전년보다 늘었고 35.2%는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부부처·출연기관 등은 작년 상반기보다 채용계획 인원이 4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 수요가 가장 많은 유형에 속했다. 이를 기관의 채용형태는 신입직이 91.5%를 차지해 청년층 구직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사 대상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 초임연봉은 2355만원으로, 작년 하반기의 2241만원보다 114만원 증가했다. 기업 유형별로는 외국인 회사가 271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종이 3094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설 연휴 가족과 함께 오세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가 설 연휴 때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원터 플레이타임’. 원터 플레이타임을 통해 에버랜드 캐릭터들은 손님과 함께 길쌈놀이, 제기차지, 박 터뜨리기 등 화합의 놀이 한마당을 펼친다.

/연합뉴스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전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 외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의 차만 납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人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김농Set
다답Set
우진감로
김사Set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02-730-2983
• 부산 차생원 051-7007-8
T. 222-2902, 3973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 OPEN 기념!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 한식 20가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총 1000석
5F 베리지오홀(웨딩홀)
카네기홀(연회장)
4F 객실, 신부대기실
3F 객실
2F 객실, 휴트니스센터
1F 프렌트, 커피숍,
비지니스센터,
회의실, 연회상담실
B1 대연회장, 페백실

***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 전객실 인터넷 사용**

객실예약 | (062) 600-9999 예식연회예약 | (062) 362-0011, 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 (상무지구 콜센터 옆) | www.hotelarthall.co.kr